

# ‘아날로그’ 불편함에 빠지다,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다

LP·사진인화·휴대용 CD 플레이어 등 추억상품 수요 늘어  
자연이 숨쉬는 풍경속으로... 기차·버스 이용 여행상품 인기

스마트폰 3500만명 시대. 첨단 디지털기에 대한 현대인들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최근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상품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와 소비 전반에 ‘힐링’ 이 트렌드를 이루면서 느낌의 여유를 즐기거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시대에 멀어진 아날로그 상품... 온라인몰서 '재조명'  
디지털시대에 사라졌던 아날로그 상품이 온라인몰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  
11일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등에 따르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LP판과 턴테이블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름카메라와 필름 매출은 같은 기간 25%, 40% 늘었다.  
이처럼 아날로그 상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전문관과 기획전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터파크가 지난해 11월 오픈한 LP전문관 'La Musica'는 월 평균 15% 매출 신장을 기록했으며, 지난 3월 21일부터 신작 순 366개 한정 판매에 나선 '들국화' LP 세트는 16만3000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진을 앞두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14년만의 들국화 콘서트가 진행되면 곧 완판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파크에서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인화할



수 있는 '사진 인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디지털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사진 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인화할 수 있으며, 앨범과 포토달력 등의 관련 상품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G마켓 역시 아날로그 상품이 인기다. 올해 동안 휴대용 CD 플레이어와 미니캐세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21%



〈사진:인터파크 제공〉

판매 성장했다. 인기 상품으로 복고형 디자인에 꼭 필요한 기능만 담은 '소니 TCM-150'(2만9000원)와 심플한 디자인의 '코비 CD플레이어'(2만1000원)가 있다.  
11번가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라디오와 CD플레이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신장했으며, 만년필 매출은 같은 기간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창 보며 힐링을... 기차나 버스 여행 상

품도 인기'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 차창 풍경도 감상하고, 자연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여행 상품도 인기다. 실제 인터파크투어에서 올해 등록된 기차 여행과 버스 여행 상품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투어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버스 여행을 한 곳에 모아 '대한민국 대

표 북측제 여행BEST 기획전'을 운영한다.  
오는 30일까지 판매하는 '뽕방 유채꽃 축제&대관령 양떼목장(3만5000원)'은 강원도 삼척의 뽕방해변 유채꽃 축제와 목호항, 대관령양떼목장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예약 판매 중인 '담양 대나무 축제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상품 또한 자연을 벗삼아 조용하고 느긋한 여행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다.  
채성현 인터파크 마케팅부서 과장은 "지난해 영화와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복고 열풍이 확산, 최근 아날로그 상품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만화책, 불량식품 등 저렴하고 위트있는 상품이 지난해 히트했다면, 올해에는 LP나 필름카메라, 자연 체험 여행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영국 대표 체다 치즈를 맛본다

매일유업, '바버1883 체다' 출시

매일유업(대표 이창근)이 11일 영국을 대표하는 체다 치즈 브랜드 '바버1883 체다' 치즈를 출시했다.  
매일유업이 수입, 판매하는 '바버 1883 체다'는 영국의 체다 본고장인 서머셋 주 근처의 디치트(Ditchet) 지방에서 PDO(원산지 명칭 보호제도) 인증을 받고 생산된 치즈 제품으로, 청정 목장에서 목초를 먹고 자란 젖소의 우유로

만들어 이상적인 체다의 강한 향과 특 짙은 맛, 전원적인 풍미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바버 1883 체다'는 치즈 플레이트를 만들거나 아침 식단으로 과일과 빵, 크래커와 함께 먹으면 좋다. 또 머스타드를 얹게 스프레드 한 빵에 슬라이스한 햄과 같이 곁들이 치즈가 살짝 녹을 때까지 구워 '크로크 무슈'를 만들기에에도 안성맞춤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2kg, 190g 2종이 출시됐고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 스마트폰 보험료는 꼬박꼬박... 보상은 '쥐꼬리'

자기부담금 수십만원... 보험분쟁 1년새 170% 급증 속 무용론 확산

휴대전화 사용자 950여만 명이 가입한 휴대전화 보험에 대해 무용론이 일고 있다. '자기부담금 몇만 원만 내면 스마트폰 분실이나 파손 시 걱정 없다'던 판매원의 말만 믿었다가 수십만원의 자기부담금 때문에 보험 적용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11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분쟁은 407건으로 전년(151건)보다 169.5% 급증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많았던 초기에는 주로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까다로운 접수절차'에 대한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 민원의 80% 이상은 '과도한 자기부담금'에 몰려 있다.  
최근 출고가 9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 처리할 때 가입자가 내는 자기부담금만 28만~34만원에 달한다.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고가 스마트폰 분실해도 문제 없다'는 일부 판매원의 말과는 판관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부담금을 낼 바에는 신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편이 소비자에게

이득이다. 보조금 과당경쟁으로 신규 휴대전화라도 출시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반호 이동으로 신규 스마트폰을 사면 최저 20여만원의 단말기 값만 내면 된다.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이처럼 휴대전화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많아진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정책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자기부담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KT와 SKT 등 통신사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휴대전화 보험금 지급 급증으로 손해율이 상승해 별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말기 출고 가에도 원인이 있다.  
단말기 등 정보통신(IT) 기기 특성상 출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수십만원씩 떨어지지만 보험금에 적용되는 '출고가'는 유지부동이다. 이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구형 스마트폰 가격보다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자기부담금을 내더라도 휴대전화



보험을 보상받기 쉽지 않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면책조항이 많아서다.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분실이나 파손, 고장 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가입시키고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들이다.  
30만원이 최대보상한도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27만원 보상을 받은 이용자는 차후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3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와 계약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수는 2011년 874만명, 지난해 950여만명으로 매년 100여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1분기 세계 PC 판매량 4년래 최저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 7900만대 팔려

지난 1~3월 세계 PC 판매량(공급 기준)이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1분기 세계 PC 판매량이 7921만대를 기록해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8천만대 아래로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1.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른 시장조사업체인 IDC 조사에서도 1분기 PC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한 7630만대에 그쳤다.  
가트너와 미카코 가트너 수석분석가는 "4분기 연속으로 PC 판매량이 줄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수단이 PC에서 태블릿PC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가트너와 이어 "심지어 PC 보급률이 낮은 성장시장에서도 PC제조사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PC업체 레노버는 지난해 3분기 가트너 조사에서 처음으로 HP를 누르고 세계 최대 PC제조사로 올라섰다. 그러나 4분기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계속 HP를 추격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1위 자리를 탈환하지 못했다.  
HP는 이 기간에 1168만대를, 레노버는 1천167만대를 팔았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0.1%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고액대출환영
- ▶사업자금대출
- ▶미준공건물
- ▶공유지분대출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5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10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가격절충가능)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것 솔로몬과 함께 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근린생활용지(위치최상·착한가격)

- 대지 688㎡ - 매매가 13억1천
- 대지 545㎡ - 매매가 10억7천 외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실 : 32개
- 현 성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중앙공인중개사

임대업 하실분

- ☆평동공단옆 준공업지역 공장건물
- 대지 1,800㎡(544평)
- 건물 1,690㎡(510평)
- 보증금 7천만원
- 월세 880만원 (매매가 12억7천만원)
- 용차5억원포함
- 월이자 230만원
- \*투자기회도 있고 관리인이 없고 수리비용이 없고 공실이 없고 장기간 계약이 되어 있어 안정된 수입이 보장됨

대지.전.담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 매매가 평당 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 ☆광산구 오운동97번 시내버스주점
- 전원주택지(전망중음)
- 전 2,436㎡ (737평)
- 매매가 평당 27만원
-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 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 대인동실업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